예 배 순 서

묵 도 …… 시 118:1 …… 다 같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찬 송 …… 382장 …… 다 같 이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 같 이

기 도 (식구 중에 준비한 기도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 같 이

사랑의 주님! 올해도 저희에게 설 명절을 지내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명절날 한민족 모두에게 여유롭고 기쁜 설이 되게 하시며 주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되는 사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먹고 마실 것을 준비한 손길에 복을 주시고, 명절에도 외롭게 지내는 사람들 병상에 사람들을 기억하며 기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가 조상들의 훌륭한 전통을 이어받아 한 해의 계획을 세우고 서로의 건강과 형통을 위해 복을 비는 명절이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족의 건강과 생활의 형통을 허락하시며, 주님께서 늘 친구되어 주시어 기쁨과 소망 안에서 활력에 찬 생활 되게 하옵소서.

저희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가정마다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이 있습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시 55:22) 하신 주님,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저희에게는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혹시라도 세상적인 유혹이나 시험에 빠진 이가 있다면, 성령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숨어있는 자를 찾으시며 남모르게 행하는 선한 손길을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님의 그늘에 숨겨진 자 되게 하옵소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보다 골방의 기도가 많게 하시고 은혜를 받았어도 티를 내지 않게 하시고 사랑을 실천하되 드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저런 사정으로 인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돌리지 못하더라도 각자 자기 처소에서 하나님과 만나며 조상님을 기억하며 2023년 매일 매일 성령님에게 이끌리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 송 …… 438장 …… 다 같 이

성경봉독 …… 시 31:14-16 …… 다 같 이

14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6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말씀증언 …… '나의 하나님' …… 증 언 자

설날은 '새해의 새날이 선다(立)'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믿음 위에 세우고 주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31:15에서 시인은 주의 손과 내 원수의 손을 대조시킵니다. 겉보기엔 지금 원수의 손이 매우 강력합니다. 그의 힘은 매우 위협적으로 시인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손이 지닌 권능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주의 손은 원수의 손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목숨)을 주의 손에 부탁했고(5절)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14절)고 믿는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이로써 그는 자신의 생사가 주의 손에 달려 있다고 확인하는 동시에 자기 인생이 원수들의 손에서 좌우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갑자기 닥쳐온 사건에 눈도 정신도 다 빼앗긴 채 그것들의 위력 앞에 떨었던 적은 없습니까?

널리 알려진 경영상담가인 코비(Stephen Covey)는 기간관리(경영)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부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 온 나는 시간경영의 본질은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곧 진정한 관건은 시간 운영에 관한 계획과 경영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라고."시간 사용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인생에 결정적인 요소는 아

니라는 말입니다.

시편 31에서 시인은 자신의 앞날(나날, 시간)을 주님 손안에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는 예배(기도) 또는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주어진 역할을 하는 시간도 주님의 손(계획, 섭리, 능력) 안에 있다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일곱 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가상칠언) 그 중 하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막 15:34)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31의 시인처럼 하나님을 향해 '내 하나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인 동시에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관련하여 전체와 개인 이 둘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건전한 신앙이 형성됩니다. 시인이 하나님을 가리켜 '내 하나님'이라 한 것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의미입니다. i) 시인은 지금 매우 강한 압박을 받고 있다. ii) 자기 주변에 자기가 겪는 풍파를 막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iii) 자신이 신뢰하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다. 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과 영혼의 여유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2023년이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는 찬양과 기도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증언자가 짧게	증 언 자
찬 송	354장	다 같 이
주기도문		다 같 이

▷ 2023년 한 해의 기도제목을 가족과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각자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예배 후 조상님들이 남기신 유훈, 특히 신앙적 교훈을 서로 이야기하며, 그분들의 유지를 기리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2023년 계묘년)

설 날 가 정 예 배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시 31:15)

수 도 교 회